

[1~2] 다음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오늘은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남한산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아보고자 문화 해설사 ○○○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사: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남한산성은 오랜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해설사: 맞습니다. 험준한 자연 지형에 적합한 축성술로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적이 공격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자연에 축성 기술을 접목한 조상들의 지혜네요.

해설사: 그렇습니다. 『택리지』에는 남한산성이 그러한 이유로 큰 전란에도 함락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죠.

진행자: 그렇군요. 그럼 오늘 대담의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은 문화유산으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나요?

해설사: 남한산성의 가치로는 먼저 시대별 축성술을 보여 주는 표본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진행자: 남한산성이 시대별 축성술의 표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해설사: 그것은 하나의 성에서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한산성은 신라 시대에 처음 쌓은 주장성을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증축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예전에 남한산성에 갔을 때 보니까 성벽을 쌓은 돌의 종류나 쌓은 방식이 조금씩 다르던데 방금 말씀하신 시대별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해설사: 맞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시대 이전의 성벽은 옥수수알 모양으로 다듬은 돌로 쌓았고 조선 영조 때의 성벽은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 돌을 이어 붙이듯이 쌓았습니다. 이처럼 남한산성에서는 시대별로 다른 축성술을 한눈에 볼 수 있죠.

진행자: 청취자 여러분도 남한산성에 가시면 성벽의 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좋겠네요. 그럼 시대별 축성술과 관련된 또 다른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1. [A]~[E]에 나타난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진행자는 대담의 취지를 밝히며 대담에서 소개될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 ② [B]: 해설사는 소개할 내용과 관련된 진행자의 배경지식을 물은 후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C]: 해설사는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여 진행자 말의 일부를 수정하고 있다.
- ④ [D]: 진행자는 해설사가 말한 내용이 진행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 ⑤ [E]: 진행자는 해설사의 말을 요약한 후 다음에 나눌 이야기를 안내하고 있다.

2. <보기>는 위에 제시된 대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이 대화를 고려할 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1 이번 남한산성 답사의 홍보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 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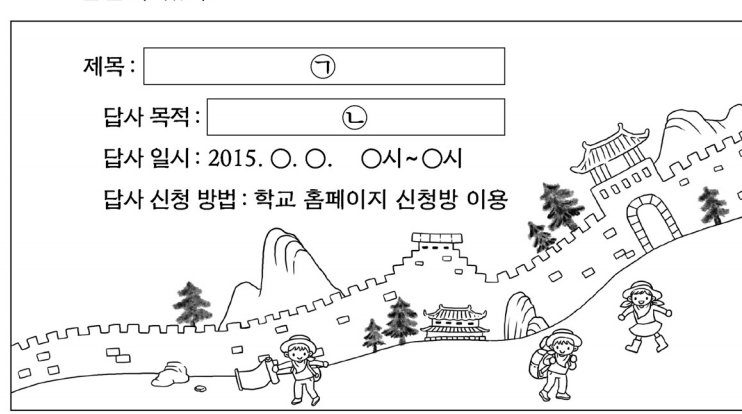
학생 2 응. 포스터 초안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봐. 포스터 제목은 의인법을 활용했고 답사 목적은 대담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 봤어.

제목: ㉠

답사 목적: ㉡

답사 일시: 2015. ○. ○. ○시~○시

답사 신청 방법: 학교 홈페이지 신청방 이용



- ① ㉠: 우리나라 축성술의 꽃, 남한산성
㉡: 남한산성 축성술에 담긴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기
- ② ㉠: 남한산성이 들려주는 시대별 축성술 이야기
㉡: 남한산성을 답사하며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살펴보기
- ③ ㉠: 우리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남한산성으로 떠나요!
㉡: 남한산성에 얹힌 항전의 역사를 확인해 보기
- ④ ㉠: 세계 속에 우뚝 선 우리의 건축 문화, 남한산성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남한산성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 보기
- ⑤ ㉠: 남한산성의 돌, 신라 시대 축성술의 비밀을 간직하다
㉡: 옛 주장성을 완벽히 재현해 낸 축성술을 중심으로 남한산성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를 배워 보기

[3~5] 다음은 연설 의뢰서와 이에 따라 행한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연설 의뢰서]

저는 20××년 세계 □□ 사이클 대회 A시 유치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난 대회 우승자인 ○○○ 선수께 개최지 결선 투표를 위한 지지 연설을 부탁드립니다. 투표단은 대부분 사이클에 애정을 지닌 선수 출신들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개최지가 대회 취지에 잘 부합하는지를 중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클 선수 ○○○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니 무척 설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 □□ 사이클 대회의 취지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클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개최된 마흔두 번의 대회 중 사이클 강국인 유럽과 북미가 아닌 곳에서 개최된 적은 단 두 번뿐이었습니다. 우리 A시는 사이클 비인기 지역인 아시아의 도시이고 경쟁 도시는 유럽의 도시입니다. 흔히 사이클 비인기 지역의 도시가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대회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대회를 통해 사이클에 대한 A시의 시민들, 나아가 아시아 각국 시민들의 관심을 증폭할 수 있으므로 사이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최지로서 좋은 여건을 갖췄습니다. 사이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이클 인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쟁 도시는 시민의 지지가 낮지만 우리는 90퍼센트가 넘는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정부도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사이클 전용 경기장에 비해 도로 경기장이 노후화됐다는 우려도 있지만, 선수로 출전해 본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A시의 도로 경기장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정비만 하면 최적의 경기장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는 각종 국제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번 대회도 충분히 잘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이클 회원국과의 친선을 도모하고 사이클 활성화에 앞장서면서 세계 사이클 협회와의 약속을 지켜 왔습니다. 이전 대회의 유치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세계 우호 증진에 힘쓰겠다는 당시의 공약대로 사이클 전용 경기장이 없는 해외 도시들의 청소년을 초청하여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개최지로 확정되면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회 준비에 매진하겠습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사이클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사이클 없는 제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 꿈은 A시에서 열리는 대회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참가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A시 모든 시민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 꿈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연설 의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운 계획 중 연설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이 전문 지식이 있으므로 A시 사이클 전용 경기장의 내부 구조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해야겠어.
- ② 청중에게 신뢰감을 주어 지지를 얻어야 하므로 A시 도로 경기장에 대해 설명할 때 선수로서의 경험을 내세워야겠어.
- ③ 청중이 사이클에 애정이 있을 것이므로 청중과의 공통점을 내세워 공감대를 형성해야겠어.
- ④ 청중이 대회의 취지를 중시하므로 A시가 대회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겠어.
- ⑤ 대회 유치를 위해 청중을 설득해야 하므로 A시가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겠어.

4. 연설자가 연설에 사용한 전략과 구체적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3점]

전략 예상 평가 항목	강점 부각	약점에 대한 인식 전환
대회 취지 부합성	㉠	㉡
대회 개최 여건	㉢	㉣
대회 운영 능력	㉤	

- ① ㉠: 대회 개최가 A시 시민들 간의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대회 취지에 부합함을 보여 준다.
- ② ㉡: 사이클 비인기 지역에서의 대회 개최가 사이클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 ③ ㉢: 경기 시설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부정적 시각을 차단한다.
- ④ ㉣: 개최지 선정의 불공평성을 근거로 내세워 대회 유치의 타당성을 주장한다.
- ⑤ ㉤: 자료를 인용하여 사이클 강국이 아닌 곳에서도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사실을 강조한다.

5. A시의 경쟁 도시를 지지하는 청중이 위 연설을 반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시에서 사이클이 비인기 종목이라고 언급한 것은 대회 개최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을 보여 주므로 A시가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② 해외 청소년 대상 사이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언급한 것은 사이클 활성화의 사례가 되므로 A시의 지지자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③ 정부의 지원 여부를 밝히지 않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재원 마련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므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 ④ A시가 국제 대회 개최 경험이 많다고 한 것은 성공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 ⑤ A시의 경쟁 도시 시민의 지지가 낮다고 한 것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6~8] (가)에 따라 글을 쓰기 위해 (나)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다)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및 계획

- 작문 상황: 일회용품을 즐겨 쓰고 쉽게 버리는 등 값싸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소비 생활이 가져오는 결과를 소비자들이 알고 소비 생활의 관점을 바꾸기를 촉구하는 글을 쓰려 한다.
- 주제문: 환경 친화를 우선시하는 소비 생활을 하자.
- 개요
 - I. 서론
 - II. 현재의 소비 생활
 - 저렴한 가격의 제품 구매㉠
 - 편의성을 추구하는 제품 구매 및 사용㉡
 - 제품의 원료가 되는 자원의 고갈㉢
 - 생산 및 유통, 소비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 III. 대안: 환경 친화를 우선시하는 소비 생활
 - 1. 실천 방법
 - 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구매
 - 나. 제품 사용 시 환경에 끼칠 영향을 고려함
 - 2. 기대 효과
 - 가. 소비자가 환경 보전에 참여함
 - 나. 생산 및 유통 과정의 변화
 - IV. 결론: 소비 생활의 관점 개선 촉구 및 제언

(나) 인터뷰

질문자: 제도적으로 환경 친화적 소비를 돕는 것이 있나요?

전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생산, 유통, 폐기 과정에서의 환경 친화적 제품에 대해 공인된 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질문자: ㉠ 제품에 환경 표지를 붙이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 소비자에게는 제품의 친환경성 정보를 전달하여 소비자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환경 보전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기업에는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 친화적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 구체적인 표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문가: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인증하는 것도 있고, 제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도표나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직접 표시해서 소비자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 신문 기사

최근 친환경적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기업들도 이를 고려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사례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 기업은 제품의 생산, 유통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동종 제품의 평균보다 줄인 음료수를 개발하고 동종 제품 중 최초로 환경 친화 제품임을 인정받아 환경 표지를 붙여 출시하였다.

6. (가)의 개요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II의 내용을 항목화하려고 한다. 정보 간의 관계와 내용 전개를 고려할 때, ‘항목’과 ‘내용’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항목	내용
① 1. 양상	— ㉠, ㉡
2. 문제점	— ㉢, ㉣
② 1. 현황	— ㉠, ㉡
2. 종류	— ㉢, ㉣
③ 1. 실태	— ㉠, ㉡
2. 원인	— ㉢, ㉣
④ 1. 목적	— ㉠, ㉡, ㉢
2. 필요성	— ㉣
⑤ 1. 대책	— ㉠, ㉡, ㉢
2. 심각성	— ㉣

7. ㉠, ㉢의 공통된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상 독자의 성향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표출한다.
- ②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의 구체적 사례를 요구한다.
- ③ 작문 내용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다.
- ④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구한다.
- ⑤ 작문 목적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8. (나), (다)를 활용하여 (가)의 III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III-1-가에서는 (나)를 활용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과 관련된 친환경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② III-1-가에서는 (다)를 활용하여 동종 제품 가운데 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환경 표지가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③ III-2-가에서는 (나)를 활용하여 환경 표지가 붙은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면 소비자가 환경 보전에 참여하게 되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한다.
- ④ III-2-나에서는 (다)를 활용하여 환경 친화적 소비가 생산 및 유통 과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한다.
- ⑤ III-2-나에서는 (나)와 (다)를 활용하여 친환경적 제품 생산이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해 소비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한다.

[9~10] 다음은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 아침엔 다른 날보다 일찍 잠이 깨었다. 무엇을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학교까지 걸어가 보기로 했다. 길을 걷는 동안 버스가 빠른 속도로 곁을 스쳐 갔다. 어제까지는 나도 그 속에 앉아 바쁘게 오고 가느라 느긋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떠올랐다. 하지만 오늘은 걸어가면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었다. 걸어가다 보니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다. 걸어서 등교하지 않았다면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뿌듯한 마음에 발걸음이 더 가벼워졌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는 나뭇잎들을 보면서 건다가 문득 ‘어, 한 나무에서 돌아난 나뭇잎들인데 빛깔이 다르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발걸음을 멈추고 나무를 자세히 올려다 보니 수많은 나뭇잎들이 모두 조금씩 다른 빛깔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다른 빛깔들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 가을에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다양한 빛깔의 나뭇잎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가을의 아침을 나무들과 함께 걸으며 나의 생활을 돌아보았다. 문득 친구들이 떠올랐다.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했던 일, 내 의견에 반대하는 친구들에게 반감을 가졌던 일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다른 것은 삶의 빛깔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9. 학생이 초고를 쓰는 과정에서 소재로부터 떠올린 생각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 | | |
|--------|---|---------------------------------------|
| ① 버스 | → | 바쁘게 오고 가느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음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
| ② 새 소리 | → | 이전에 주목하지 못했던 것을 인식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는구나. |
| ③ 나뭇잎들 | → | 서로 다른 모습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구나. |
| ④ 가을 | → |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구나. |
| ⑤ 친구들 | → | 생각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

10.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쓰고 스스로 점검한 내용이다. 초고의 마지막에 추가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고의 마지막 부분이 완결된 것 같지 않아서 끝에 문장 하나를 추가해야겠어. 둘째 문단에서 쓴 내용으로부터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이끌어 내어 앞으로 가져야 할 내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 ① 사회가 아름다운 하나의 빛깔을 가지려면 구성원들이 서로의 빛깔 차이를 줄여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나의 고유한 빛깔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가야겠다.
- ③ 다양한 삶의 빛깔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사람들의 서로 다른 삶의 빛깔을 인정하며 살아야겠다.
- ④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빛깔을 드러낼 기회를 줄 때 사회는 더욱 아름다운 빛깔을 지니게 될 것이다.
- ⑤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나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삶의 빛깔을 지녀야겠다.

11. <보기>에 따라 겹받침의 표준 발음에 대하여 단계별로 학습하였다. 각 예에 적용된 내용과 그 발음이 모두 바른 것은? [3점]

- <보 기> —
-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ㅆ]으로 발음한다. ㉠
 - 겹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으로 발음한다. ㉡
 - 이 후에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 [ㄱ, ㄴ]은 ‘ㄴ, ㄹ’ 앞에서 각각 [ㅇ, ㄴ]으로 발음한다. ㉢
 - [ㄱ, 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ㄹ, ㅅ, ㅈ’은 각각 [ㄱ, ㄷ, ㄹ, ㅅ, ㅈ]으로 발음한다. ㉣
 - [ㄱ, ㄴ]은 ‘ㅎ’과 결합되는 경우, 두 음을 합쳐서 각각 [ㅋ, ㆁ]으로 발음한다. ㉤

	예	적용 내용	발음
①	여덟+이	㉠	[여더리]
②	몹+을	㉠	[목슬]
③	흙+만	㉡, ㉢	[흑만]
④	값+까지	㉡, ㉣	[갑까지]
⑤	답+하고	㉡, ㉤	[다카고]

12. <보기>는 한글 맞춤법 제1항이 파생어와 합성어에 적용된 예를 찾아본 것이다.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 소리대로 적되, ㉡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파생어	합성어
㉠만 충족한 경우	㉠	㉡
㉡만 충족한 경우	㉢	㉣
㉠, ㉡ 모두 충족한 경우	㉤	줄자(줄+자), 눈물(눈+물)

- ① ㉠: 이파리(잎+아리), 얼음(얼+음)
- ② ㉡: 마소(말+소), 낮잠(낮+잠)
- ③ ㉢: 웃음(웃+음), 바가지(박+아지)
- ④ ㉣: 옷소매(옷+소매), 밥알(밥+알)
- ⑤ ㉤: 꿈(꾸+口), 사랑니(사랑+이)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엄마와 아들이 둘이서 걸어가며)

아들: 엄마, 올해 마지막 날 엄마와 쇼핑 나와서 참 좋아요.

엄마: ㉠ 엄마도 영수랑 같이 나오니까 참 좋다.

아들: 어, 저거 뭐지? 엄마, 저 옷 가게 광고판 좀 보세요.

엄마: 뭐? ㉡ 저거?

아들: 네, ㉢ 저거요. ‘2015년 12월 30일, ㉣ 오늘 하루만 50% 할인’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엄마: 그래? 그러면 ㉤ 어제였네. ㉥ 누나 옷 사야 되는데.

아들: 엄마, 그 옆 가게는 오늘까지 할인하는데요. 그런데 제 옷도 사 주시면 안 돼요?

엄마: 그래. 알았어, ㉦ 우리 아들. ㉧ 영수도 옷 사 줘야지.

아들: 와, 잘됐다. 다음 주 여행 갈 때 입고 가야겠다.

- ① ㉠과 ㉡은 청자의 관점에서 사용한 지칭어이다.
- ② ㉠과 ㉢은 현재의 담화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 ③ ㉡과 ㉣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
- ④ ㉢과 ㉤은 동일한 날을 가리킨다.
- ⑤ ㉤과 ㉧은 화자와 청자를 제외한 제삼자를 가리킨다.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같이[가치]

① ㉠

①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다

②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
 ㉢예상한 바와 **같이**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② ㉢

①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

②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 조사.
 ㉤**새벽같이** 떠나다

같이-하다[가치-] ㉦ 【(…과)…을】

① 경험이나 생활 따위를 얼마 동안 더불어 하다.
 =함께하다①.
 ㉡친구와 침식을 **같이하다**/평생을 **같이한** 부부

② 서로 어떤 뜻이나 행동 따위를 동일하게 가지다.
 =함께하다②.
 ㉢그와 의견을 **같이하다**/견해를 **같이하다**

- ① ‘같이’의 품사 정보와 뜻을 보니, ‘같이’는 부사로도 쓰이고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는 말로군.
- ② ‘같이’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같이㉡①’의 용례로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③ ‘같이’와 ‘같이하다’의 표제어 및 뜻풀이를 보니, ‘같이하다’는 ‘같이’에 ‘하다’가 결합한 복합어로군.
- ④ ‘같이하다’의 문형 정보 및 용례를 보니, ‘같이하다’는 두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고, 세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군.
- ⑤ ‘같이하다’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평생을 같이한 부부’의 ‘같이한’은 ‘함께한’으로 교체하여 쓸 수 있겠군.

15. 다음 중 문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문장은?

- ① 그는 자기가 창안한 사회 이론을 더욱 발전해 사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②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두 사람은 눈짓을 주고받은 후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 ③ 유럽은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생산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라 사회 조직의 큰 변화를 겪었다.
- ④ 이 책의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려는 요점은 모름지기 사람은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
- ⑤ 그의 작품들은 엇비슷해서 학생들이 작품 이름의 혼동이나 각 작품의 이야기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王(왕)이 니르샤디 大師(대사) ㉠ 혼산 일 아니면 뉘 혼 거시
잇고 ㉡ 仙人(선인)이 솔보디 大王(대왕)하 이 ㉢ 南堀(남굴)스
仙人(선인)이 혼 썩를 길어 내니 양지 端正(단정)하야
㉣ 世間(세간)에 ㉤ 쉽디 몬흐니 그 썩 흐닐 ㉥ 時節(시절)에
자취마다 ㉦ 蓮花(연화)ㅣ 나느니이다

- 「석보상절」 -

[현대어 풀이]

왕이 이르시되 “대사 하신 일 아니면 누가 한 것입니까?”
선인이 아뢰되 “대왕이시여, 이 남굴의 선인이 한 딸을 길러
내니 모습이 단정하여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가) 쉽지 못하니
그 딸 읊적일 시절에 자취마다 연꽃이 납니다.”

- ① ㉠에서는 주체인 ‘대사’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쓰였군.
- ② ㉡의 ‘이’와 ㉢의 ‘ㅣ’는 격 조사의 종류가 달라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군.
- ③ ㉣을 보니 ‘스’는 현대 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군.
- ④ ㉤과 ㉥을 보니 모음 조화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부사격 조사가 있었군.
- ⑤ ㉦과 현대 국어의 ‘쉽지’를 비교해 보니 ‘-디’에서는 구개음화가 확인되지 않는군.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삶에서 운이 작용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의무 윤리’든 행위의 ㉠ 기반이 되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덕의 윤리’든, 도덕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자들은 도덕적 평가가 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생각처럼 도덕적 평가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운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없어서, 운에 따라 누구는 도덕적 이게 되고 누구는 아니게 되는 일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 어떤 철학자들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그런 운을 ‘도덕적 운’이라고 부른다. 그들에 따르면 세 가지 종류의 도덕적 운이 ㉢ 거론된다. 첫째는 태생적 운이다. 우리의 행위는 성품에 의해 결정되며 이런 성품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므로, 성품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 개입되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둘째는 상황적 운이다. 똑같은 성품이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그 성품이 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가령 남의 것을 탐내는 성품을 똑같이 가졌는데 결핍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 성품이 발현되는 반면에 풍족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면, 전자만 비난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의해 도덕적 평가가 좌우되는 결과적 운이다. 어떤 화가가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멀리 떠났다고 해 보자. 이 경우 그가 화가로서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그의 무책임함을 더 비난하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그가 가족을 버릴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그의 행위를 달리 평가하는 것 역시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라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결국 도덕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짐을 의미한다. ㉤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대상은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동안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었던 성품이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는 난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고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에 ㉠ 국한한다면 이와 같은 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운이라고 생각되는 예들이 실제로는 도덕적 운이 아님을 보여 주면 된다. 우선 행위는 성품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태생적 운의 존재가 부정된다. 또한 나쁜 상황에서 나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어떤 사람을 ㉡ 편하하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상황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 끝으로 어떤 화가가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난받아야 하므로 결과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 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되기 때문이다.

17. ㉠과 글쓴이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평가를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 ② ㉠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적 영역에서는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 ③ ㉠과 글쓴이는 모두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같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은 글쓴이와 달리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⑤ ㉠과 달리 글쓴이는 도덕적 평가는 ‘상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8. ㉠의 관점에 따를 때,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거친 성격의 사람이 자신의 성격을 억누르고 주위 사람들을 다정하게 대했다.
 ㄴ. 복잡한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떠밀린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앞 사람의 발을 밟게 되었다.
 ㄷ. 글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중요한 서류가 실수로 버려진 것인 줄 모르고 찢으며 놀았다.
 ㄹ. 풍족한 나라의 한 종교인이 가난한 나라로 발령을 받아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했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9. 밑글에 근거하여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동료 선수와 협동하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감행한 축구 선수 A와 B가 있다. A는 상대팀 골키퍼가 실수를 하여 골을 넣었는데, B는 골키퍼가 실수를 하지 않아 골을 넣지 못했다. 두 사람은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이나 행위와 동기는 같은 데도, 통상 사람들은 A보다 B를 도덕적으로 더 비난한다.

- ① 결과적 윤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A보다 B가 더 무모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본다.
 ② 상황적 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A가 B의 상황이라면 무모함과 독선이 발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비난받아서 안 된다고 본다.
 ③ 태생적 윤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B가 A에 비해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을 천부적으로 더 가지고 있으므로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본다.
 ④ 도덕적 윤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A가 B의 처지라면 골을 넣지 못했으리라는 추측만으로 A를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⑤ 도덕적 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A는 B에 비해 무모함과 독선이 사람들에게 덜 부각되었을 뿐이라고 본다.

20.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
 ② ㉡: 어떤 사항을 논제로 삼아 제기하거나 논의함.
 ③ ㉢: 자신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
 ④ ㉣: 알맞게 이용하거나 어떤 상황에 맞추어 씀.
 ⑤ ㉥: 어떤 대상이 지닌 가치를 깎아내림.

-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에서도 지식 경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식 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조직적인 학습과 혁신 능력, 즉 기업의 지적 역량에 있다고 보아 지식의 활용과 창조를 강조하는 경영 전략이다.

지식 경영론 중에는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폴라니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지각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적 지식도 지적 활동의 주체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유리된 것이 아니다. 어떤 지각 활동이나 관찰, 추론 활동에도 우리의 몸이나 관찰 도구, 지적 수단이 항상 수반되고 그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요컨대 모든 지식에는 암묵적 요소들과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간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폴라니의 말은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노나카 이쿠지로는 지식에 대한 폴라니의 탐구를 실용적으로 응용하여 지식 경영론을 펼쳤다. 그는 폴라니의 ‘암묵지’를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으로 파악했다. 또한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노나카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변환** 과정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것은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개인의 숙련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동화’라 한다. 암묵지에서 명시지로의 변환은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것으로서 ‘표출화’라 한다. 또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것은 ‘연결화’라 하고,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것은 ‘내면화’라 한다. 노나카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대로 지식 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식 공유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에게 체화된 무형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한 정보와 유용한 지식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이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1. 밑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식에 대한 두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 경영의 유용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
- ② 지식에 대한 견해의 변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비되는 지식 경영론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③ 지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지식 경영론을 소개하고 지식 경영의 성과를 좌우하는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 ④ 지식이 분리되어 가는 과정에 따른 지식 변환의 단계를 설명하고 지식 경영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 ⑤ 지식의 성격이 변화된 원인을 분석하고 지식 경영론의 등장 배경을 탐색하고 있다.

22.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폴라니는 고도로 형식화된 과학 지식도 암묵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 ② 폴라니는 지적 활동의 주체와 분리되어 독립된 객체로서 존재하는 지식은 없다고 본다.
- ③ 노나카는 암묵지가 그 속성 때문에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명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
- ④ 노나카의 지식 경영론은 지식이 원활하게 변환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가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⑤ 폴라니는 지식에서 암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나카는 지식들 간의 변환 과정에 주목한다.

23. **지식 변환**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사의 직원이 자사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과 계속 접촉하여 소비자들의 느낌을 포착해 낸 것은 ‘연결화’의 사례이다.
- ② B사가 자동차 부품 관련 특허 기술들을 부문별로 재분류하고 이를 결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한 것은 ‘표출화’의 사례이다.
- ③ C사의 직원이 경쟁 기업의 터치스크린 매뉴얼들을 보고 제품을 실제로 반복 사용하여 감각적 지식을 획득한 것은 ‘내면화’의 사례이다.
- ④ D사가 교재로 항공기 조종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이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 조종술에 능숙하게 된 것은 ‘연결화’의 사례이다.
- ⑤ E사의 직원이 성공적인 제품 디자인들에 동물 형상이 반영되었음을 감지하고 장수하늘소의 몸체가 연상되는 청소기 디자인을 완성한 것은 ‘공동화’의 사례이다.

24.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나타난 F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만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F사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지식의 산출을 독려하고 이를 체계적인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였다. 보고서와 제안서 등의 가시적인 지식의 산출에 대해서는 보상했지만, 경험적 지식이나 창의적 아이디어 같은 무형의 지식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제도는 갖추지 않았다. 그 결과, 유용성이 낮은 제안서가 양산되었고, 가시적인 지식을 산출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애착과 헌신은 감소했으며, 경험 많은 직원들이 퇴직할 때마다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

- ① 직원들 각자가 지닌 업무 경험과 기능을 존중하고 유·무형의 노력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 문화와 동기 부여 시스템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② 직원들의 체화된 무형의 지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헌신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③ 숙련된 직원들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면대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집단적 업무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 ④ 직원들이 회사에서 사용할 논리적이고 형식화된 지식을 제안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할 필요가 있다.
- ⑤ 창의적 아이디어가 문서 형태로 표현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 제안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 받아들였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 부른다.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㉔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㉕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 보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㉖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2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
- ②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 ③ 계약에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 ④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 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 ⑤ 기판력에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이후에 법원 스스로 그와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26. ㉕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②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에는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 것이다.

- ③ 첫 번째 소송에서나 두 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일 것이다.
- ④ 두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P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P와 E 사이에 승패가 상반될 것이므로 두 판결 가운데 하나는 무효일 것이다.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 간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하는데, 계약서와 같은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가) 또는 (나)의 경우가 생겼다고 하자.

- (가) 갑은 금전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나)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갚기로 한 날은 2015년 11월 30일이라 인정하여,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① (가)의 경우, 갑은 더 이상 상급 법원에 상소하여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
- ② (가)의 경우, 갑은 빌려 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금전을 갚아 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나)의 경우, 을은 2015년 11월 30일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 ④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⑤ (나)의 경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이 갚기로 한 날임을 밝혀 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 갑은 같은 해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근거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

28. 문맥상 ㉔~㉖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 수취하였다
- ② ㉔: 부가하는
- ③ ㉔: 지시한다
- ④ ㉔: 형성되었을
- ⑤ ㉔: 경유하여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물체가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 속에서 자유 낙하할 때 물체에는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한다.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다.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빗방울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빗방울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이다.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 수준이므로, 빗방울이 공기 중에서 떨어질 때 부력이 빗방울의 낙하 운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미미하다. 그러나 스티로폼 입자와 같이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가 낙하할 경우에는 부력이 물체의 낙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물체가 유체 내에 정지해 있을 때와는 달리,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발생하는데, 이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항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이에 상응하여 커진다. 항력은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의 합이다. 마찰 항력은 유체의 점성 때문에 물체의 표면에 가해지는 항력으로, 유체의 점성이 크거나 물체의 표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압력 항력은 물체가 이동할 때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의해 생기는 항력으로, 물체의 운동 방향에서 바라본 물체의 단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안개비의 빗방울이나 미세 먼지와 같이 작은 물체가 낙하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가 매우 작아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빗방울의 크기가 커지면 전체 항력 중 압력 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진다. 반면 스카이다이버와 같이 큰 물체가 빠른 속도로 떨어질 때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의한 압력 항력이 매우 크므로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에 기여하는 비중은 무시할 만하다.

빗방울이 낙하할 때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항력도 커지게 되어 마침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지게 된다. 이때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므로 빗방울의 속도는 일정해지는데, 이렇게 일정해진 속도를 종단 속도라 한다. 유체 속에서 상승하거나 지면과 수평으로 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도 종단 속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평형에 의한 것이다.

2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 완전히 잠겨 있는 쇠 막대에 작용하는 부력은 서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가 더 크다.
- ②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서 낙하하는 동전에 작용하는 부력은 항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 ③ 낙하하는 물체의 속도가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되면 그 물체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와 같아진다.
- ④ 물체가 유체 속에서 운동할 때 물체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는 그 물체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 ⑤ 스카이다이버가 낙하 운동할 때에는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크기와 모양은 같으나 밀도가 서로 다른 구 모양의 물체 A와 B를 공기 중에 고정하였다. 이때 물체 A와 B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으며, 물체 B의 밀도는 물체 A보다 더 크다. 물체 A와 B를 놓아 주었더니 두 물체 모두 속도가 증가하며 상승하다가, 각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각각 다른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 계속 상승하였다. (단, 두 물체는 공기나 다른 기체 중에서 크기와 밀도가 유지되도록 제작되었고, 물체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체의 흐름과 같은 외적 요인들이 모두 제거되었다고 가정함.)

- ① A와 B가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A에 작용하는 항력이 B에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작겠군.
- ②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더 작겠군.
- ③ A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A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보다 A가 고정되어 있을 때 더 크겠군.
- ④ A와 B 모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A와 B에 작용하는 항력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는 것이겠군.
- ⑤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B에 작용하는 항력은 공기 중에서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크겠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불을 끈 다음에 아내가 다시 소곤거려 왔다.

“당신두 보셨죠? 오늘사 말고 영기 엄마 배가 유난히 더 불러 보였어요. 혹시 쌍둥이나 아닌가 싶어서 남의 일 같잖아요. 여덟 달밖에 안 된 배가 그렇게 만삭이니 원…….”

“당신더러 대신 낳으라고 떠맡기진 않을 거야. 걱정 마.”

㉠ 나는 그날 밤 디킨즈와 램의 궁둥이를 번갈아 걷어차는 꿈을 꾸었다. 내가 권 씨의 궁둥이를 걷어차고 권 씨가 내 궁둥이를 걷어차는 꿈을 꾸었다.

아내가 권 씨네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해서 권 씨 부인의 그 금방 쏟아질 것만 같은 아랫배에 관한 관심이었다. 말투로 볼 때 남자들이 집을 비우는 낮 동안이면 더러 접촉도 가지는 모양이었다. ㉡ 예정일도 모르더라면서 아내는 길길길 웃었다. 임신부가 자기 분만 예정일도 몰라서야 말이 되느냐고 핀잔했더니, 까짓것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어차피 때가 되면 배 아프며 낳기는 마찬가 지라면서 태평으로 있더라는 것이었다.

권 씨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였다. 일정한 직장 이 없으면서도 아침만 되면 출근 복장을 차리고 뻔질나게 밖 으로 나가곤 했다. 몸에 붙인 기술도, 그렇다고 타고난 똑심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공사판 같은 데 나가 막일을 하는 눈치였

다. “동주운아, 노을자야!” 하고 둘이 합창하듯이 길게 외치면서 일단 안방까지 들어오는 데 성공한 권 씨의 아이들은 끼니 때가 되어도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문간방으로 돌아가지 않는 적이 자주 있게 되었다. 문간방의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징조였다. 그렇다고 권 씨나 권 씨 부인이 우리에게 터놓고 도움을 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 다만 우리로 하여금 그런 꼴을 목격하고도 도울 마음을 먹지 않으면 도무지 인간이 아니게서 리 상황을 최악의 선까지 잠자코 물고 갈 뿐이었다. 애당초 이 순경이 기대했던 그대로 산타클로스 비슷한 꼴이 되어 쌀이나 연탄 따위를 슬그머니 문간방 부엌에다 넣어 주고 온 날 저녁이면 아내는 분하고 억울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임부나 철부지 애들을 생각한다면 그까짓 알량한 선심쯤 아무렇지도 않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제게 딸린 처자식조차 변변히 건사 못 하는 한 열간이 사내한테까지 자기 선심의 일부나마 미칠 일을 생각하면 꽤썸해서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생명을 앓았다. 권 씨가 여간내기 아니라고 속삭이던 게 엇그제인 걸 벌써 잊고 아내는 셋방 잘못 내줬다고 두고두고 자탄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여전히 별이가 시원찮은 상태에서 권 씨 부인은 어언 해산의 날을 맞게 되었다. 진통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되는 모양이었다. 아내의 귀땀으로는 점심 무렵이 지나서부터 그런다고 했다.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다가 나는 문간방에서 울리는 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되게 몸살을 하듯이 끽끔 앓는 소리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몸의 어딘가에 깊숙이 칼이라도 받는 양 한 차례 처절하게 부르짖고는 이내 도로 잠잠해지곤 하면서 이러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그것이 방을 세내 준 이후로 처음 듣는 권 씨 부인의 목소리였다.

“당신이 한번 권 씨 설득해 보세요. 제가 서너 번 애길 했는데 두 무슨 남자가 실실 웃기만 하면서 그저 염려 없다구만 그러네요.”

병원 얘기였다.

“권 씨가 거절하는 게 아니고 돈이 거절하는 거겠지.”

아내는 진즉부터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더러는 흥보고 또 더러는 우려해 왔었다.

“남산만이나 한 배를 갖추서 요즘 세상에 그래 앨 집에서, 그것도 산모 혼잣힘으로 낳겠다니, 아무래두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애요. 달이 다 차도록 기저귀감 하나 장만 않는 여편네나 조산원 하나 부를 돈도 마련이 없는 사내나 어쩔 그리 짹짹인지!”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나서 나는 권 씨를 마당으로 불러냈다. 듣던 대로 권 씨는 대뜸 아무 염려 말라면서 실실 웃었다. 마치 곤경에 빠진 나를 극진히 위로해 주는 투였다.

“둘째 때도 마누라 혼자서 거뜬히 해치웠거든요.”

“우리가 염려하는 건 권 선생네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의 일이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 난 권 선생을 원망하겠소.”

작자가 정도 이상으로 느물거린다 싶어 나는 엔간히 모진 소리를 남기고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 윤홍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

3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내’는 ‘권 씨네’에게 선심을 베푸는 것을 비판하는 ‘나’로 인해 생명을 앓는다.
- ② ‘아내’는 ‘권 씨’가 ‘권 씨네’의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간내기가 아니라고 간주한다.
- ③ ‘아내’는 ‘권 씨 부인’의 진통이 시작된 것을 ‘나’를 통해 알게 된다.
- ④ ‘아내’의 불안감과 우려는 ‘나’로 하여금 ‘권 씨’를 불러내게 하는 계기가 된다.
- ⑤ ‘나’를 위로하는 ‘권 씨’의 행동은 ‘권 씨’에 대한 ‘아내’의 원망을 누그러뜨린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나’의 경험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은 ‘아내’의 말을 통해 다른 인물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은 ‘나’가 관찰하고 있는 인물들의 내면을 묘사하고 있다.
- ④ ㉠과 ㉢은 ‘나’와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과 ㉢은 인물들을 바라보는 ‘나’의 긍정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70년대 한국 소설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공동체적 유대감이 파괴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소시민이 나타난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태가 심화되고 계층 분화가 일어나면서 주변부로 밀려난 도시 빈민과 같은 소외 계층이 등장하는데, 이들도 소설의 주요한 제재로 반영되고 있다.

- ① ‘나’가 ‘권 씨네’를 의식하면서도 ‘권 씨네’의 상황에 거리를 두려는 것은 소시민의 내적 갈등을 보여 주는군.
- ② ‘권 씨’가 일정한 직업 없이 막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층이 분화하면서 생겨난 도시 빈민의 처지를 나타내는군.
- ③ ‘아내’가 ‘권 씨네’를 대하는 이중적 태도는 공동체 의식과 개인주의 사이에 놓인 소시민의 모습을 반영하는군.
- ④ ‘권 씨 부인’이 혼자 힘으로 해산을 하려는 모습은 궁핍한 삶에 내몰린 소외 계층의 처지를 반영하는군.
- ⑤ ‘나’가 ‘권 씨네’에 대해 염려하며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한 것은 공동체적 유대감을 회복하려는 소시민의 욕망을 드러내는군.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 씨: ㉠ 네 외할아버지도 그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구월 구월날 오늘이다. 오늘 오후[正午]나 되어서 촌에서 잡혀 온 다른 동학꾼 둘하고 같이 셋을 한꺼번에 총으로 쏘아 죽인다고 사정(射亭)으로 끌고 나와서는.

(㉡ 무대 급히 암전. 다시 서서히 밝아지면 제2장)

제2장

[무대] 정면으로 '정기정(正己亭)'이라는 현판이 붙은 사정. 좌우는 들을 건너 단풍 든 먼 산. 무대가 밝아지면 사정 마루에 앞으로 수령이 좌정하고 뒤와 좌우로는 각방 이속이 나열. 대뜰에는 엮드린 급창. 대뜰 밑으로 바로 김성배 외에 두 사람의 동학당원이 결박을 진 채로 꿇어앉았고, 그 뒤로 넋지시 참령이 거느린 병정 일 지대가 정렬해 서 있다. 사정 좌우로는 겁먹은 남녀노소들이 묵묵히 서서 있고 김성배의 모친도 남의 부축을 받아 그중에 섞여 있다.

수령: 너희들을 죄상에 의지해서 지금 처형을 하거니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말을 해라.

급창: (칭을 내어) 너희들을 죄상에 의지해서 지금 처형을 하거니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아뢰옵신다—.

사령: (죄수들을 들여다보고) 아뢰라.

죄수들: (땀을 흘리며) 아뢰라.

사령: (김성배의 풀상투를 잡아 제치면서) 아뢰라.

성배: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문다)

모친: (옆의 사람에게 부축을 받고 서서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씻는다)

사령: (상투를 놓아주고 동학당원 갑의 풀상투를 잡아 제치면서) 아뢰라.

동학당원 갑: (우는소리로) 살려 주시오.

사령: (상투를 놓아준다)

급창: 살려 달라고 아뢰오—.

사령: (동학당원 을의 풀상투를 잡아 제치면서) 아뢰라.

동학당원 을: (우는소리로) 살려 주시오.

사령: (상투를 놓아준다)

급창: 살려 달라고 아뢰오—.

수령: 처형해라.

급창: 처형하옵신다—.

참령: (병정들더러) 형장(刑場)으랴!

(병정들 달려들어 죄수 하나에 3, 4인씩 붙어서 좌우로 끼고 뒤에서 밀고 나머지 병정들과 참령은 그 뒤를 따라 상수로 퇴장. 상수에 모여 선 구경꾼들은 와— 헤어지고, 그중 김성배의 모친은 김성배에게로, 영감 하나는 동학당원 갑에게로, 여인 하나는 동학당원 을에게로 제각기 달려들다가 병정들에게 밀어박질러 물러서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

(㉢ 무대 급히 암전. 다시 밝아지면 도로 전경*)

영오: 그럼 할머니는 그때 어데 있었수?

최 씨: 나는 집에 있었지, 못 나가고. 애기 뻔 여편네가 관가 행차나 병정들 행군하는 데 나서면 담박 총으로 쏘아 죽인다고 너희 외증조할머니가 어데 나가게 하시드냐, 그래서 나가지는 못하고 울타리 구멍으로 내어다 보기만 했지.

영오: 그런데 참 할머니.

최 씨: 오—냐.

영오: 외할아버지를 그렇게 잡아갔으니까 그럼 외, 외, (더듬다가) 외증조할아버지는 내놓아 주어예지?

최 씨: 글썄, 경우는 그래야 할 것이지만 어데 바루 내놓아 주드냐! 그런 뒤에도 훨씬 한 달이나 있다가 뇌물을 흙썬 먹고 그러고도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는 죄로 곤장을 사십 대나 때려서 내놓더라. 야속한 일도 다 있지! 글썄 그러니 그 노인이 몸이 성하셨겠니? 옥에서 나오시자 보름 만엔지 돌아가신걸. 그래서 네 외증조할아버지 제향은 바루 시월 열사흘 날이란다.

영오: 그러고 그날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병정들이 끌고 가서?

최 씨: ㉣ 그래 그렇게 사정 마당에서 앞뒤로 웅위해 가지고 사정 바루 건너편 과녁 있는 데로 끌고 가더니 (한숨, 사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제각금 다리까지 친친 동여서 과녁 앞에다가 일자로 세워 놓고는 병정들은 열댓 걸음이나 이쪽으로 물러서더니마는, 아마 한 이십 명이나 되지? 그런 병정들이 죽— 늘어서는 총을 고누더구나, 그래 방금 총소리가 나는 줄 알고 나는 울타리 구멍으로 내어다보다가 눈을 감었더니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총소리가 나지를 않겠지! 그래 웬일인가 하고 눈을 다시 떠보니까.

(㉤ 무대 급히 암전. 다시 밝아지면 제3장)

제3장

[무대] 정면은 들을 건너 단풍 든 먼 산. 상수로 는 나직한 언덕이 있고 언덕 앞으로 과녁. 하수는 흑막(黑幕). 무대가 급히 밝아지면 과녁에서 넋지시 떨어져 김성배와 두 동학당원이 결박을 지고 다리를 묶여 하수를 향해서 서서 있고 그 옆에는 둘둘 말아 놓은 한 무더기의 섬거적. 병정 한 사람 손에 흰 무명 가드락을 들고 하수로 급히 등장.

병정: 흥! 이놈들 평양 감사를 나갑네 순천 부사를 나갑네 하더니 겨우 섬거적 한 닢씩을 지고 염라국으로 가니?

- 채만식, 「제향날」 -

* 전경: 앞 장면. 여기서는 2장의 앞 장을 의미함.

34.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최 씨는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추정을 통해 짐작하고 있다.
- ② 영오가 듣고 있지 않으므로 최 씨의 뉘etur에 해당한다.
- ③ 최 씨가 영오에게 과거의 사연을 들려주고 있다.
- ④ 최 씨는 자신의 행동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 ⑤ 최 씨와 영오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무대 막을 여닫지 않고도 장면을 전환하는 효과를 수반한다.
- ② ㉡는 ‘모친’과 함께 ‘최 씨’가 등장하는 이유를 제시해 준다.
- ③ ㉢는 퇴장했던 ‘죄수들’이 다시 등장하는 시간을 확보해 준다.
- ④ ㉡ 직전 장면과 ㉢ 직후 장면은 상호 연계되어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을 형성한다.
- ⑤ ㉡ 직전 장면과 ㉢ 직후 장면은 상호 연계되어 사건 전개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보여 준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채만식은 『자작 안내』에서 동학 농민 운동을 1부로, 기미(3·1운동) 전후를 2부로, 그 뒤에 온 시대를 3부로 하여 「제향날」을 구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1937년에 발표된 「제향날」의 1~3장(1막)은 1894년의 동학 농민 운동을 역사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극중 현재(제삿날)」에서 43년이라는 시간 격차를 지닌 회상된 과거 장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시간 구조는 과거와 현재의 동일성을 암시하고 있다.

- ① 1937년에 이 작품을 읽은 독자는, 1894년이 회상되는 방식을 통해 43년의 시간 격차를 자각하고,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과거와 일제 강점기라는 현재가 긴밀하게 상관된다는 창작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 ② 최 씨 가족의 수난에 집중하는 독자는, 작품의 이중적 시간 구조를 매개하는 최 씨 역할에 주목하고, 최 씨의 신중한 대응을 비판해야 한다는 작가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겠구나.
- ③ 작가는 과거 사건으로 정기정 재판을 구상하고, 관부의 권위에 억눌린 민중의 모습을 묘사하여, 독자에게 동학 농민 운동을 역사적 소재로 인식시키고자 했겠구나.
- ④ 작가는 「제향날」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날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아, 극중 현재에 찾아온 제삿날의 의미를 독자들이 상기하도록 유도하려 했겠구나.
- ⑤ 작가는 독자들의 의문을 대신하기 위하여 극중 현재에서 영오의 질문을 제기하고, 회상 기법을 통해 그 답변을 보여 주려 했겠구나.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라가 기막혀 우는 말이,
“㉠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병든 용왕 못 보겠네. 나의 충성 부족턴가, 나의 정성 부족턴가? 객사 신세 자라 팔자, 이 아니 불쌍한가? 명천 감동하와 백호를 죽여 주오, 애고애고 설운지고.”
이렇듯이 슬피 우니 호랑이 듣더니,
“이놈, 무슨 내게 해로운 소리만 하느냐?”
자라 생각하되,
‘왕명을 피와 만 리 밖에 나와 이 지경을 당하니 일사(一死)면 도무사(都無死)라. 무이불식(無以不食)이라, 모조리 먹는다 하니 내 한번 고기 값이나 하리라.’
하고 모진 마음을 굳게 먹고,
“어따, 네가 내 근본을 알려느냐?”
하며 호랑이 앞턱을 넓다 물고 매어 달리니, 호랑이가,
“애고, 놓아. 아니 먹으마.”
자라 놓고 나았으며 움쳐 든 목을 길게 빼어 염려 없이 기를 보이니, 호랑이 보더니,
“이크, 장사 갑주 속의 방망이 총 나온다.”
하며 저마만치 물러앉으니, 자라 호랑이 질리는 기색을 알고,
“게서 내 근본을 자세히 아는가? 나는 수국 충신 간의대부 겸 시랑 별주부, 별나라라 하네.”
호랑이 무식하여 자라 별자 몰라듣고 무수히 새겨,
“별나라, 별나라, 그저 나리도 무섭다 하되 별나라 더 무섭다. 생긴 모양보다는 작품은 높고 찬란한데, 그러면 목은 어찌 그리 되었으며, 이곳엔 어찌 나왔는가?”
자라 대답하되,
“이곳 나오고 목이 이리 된 근본을 알려나?”
“어디 좀 알아봅세.”
“㉡ 우리 수궁이 퇴락하여 새로 다시 지은 후에 천여 개 기와를 내 손으로 이어갈 제, 추녀 끝에 돌아가다 한 발길 미끄러져 공중 뚝 떨어져 빙빙 돌아 내려오다 목으로 찢겨 내려 박혀 목이 이리 되었기로 명의더러 물어본즉 호랑이 쓸개가 약이 된다 하기에 벽력 장군 앞세우고 도로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 사냥 나왔으니 게가 호랑이면 쓸개 한 보 못 주겠나. 도로랑 귀신 게 있느냐? 어서 급히 빨리 나와 용천검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도로랑!”
하고 달려드니 호랑이 깜짝 놀라 물똥을 와락 싸고, ㉢ 초가 성중(楚歌聲中) 놀란 패왕 포위 뚫고 남쪽으로 달아나듯, 적벽강 불 싸움에 패군장 위왕 조조 정옥 따라 도망하듯, 북풍에 구름 달듯, 편전살 달아나듯, 왜물 조충 철환 달듯, 녹수를 열린 건너 동림(東林)을 헤치면서 쭈루쭈루 달아나 만첩청산 바위틈에 혼자 앉아 장담하고 하는 말이,
“내 재주 아니런들 도로랑 귀신 피할손가?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구나.”

(중략)

한창 이리 춤을 출 제, 대장 범치 토끼 옆에 섰다가,
“이크, 토끼 뱃속에 간이 출랑출랑하는고.”

토끼 깜짝 놀라,

‘어떤 게 간이라고? 뱃속에 물똥이 들어 출랑거리는 걸 간이라 하겠다. 아뽕싸, 김새를 보아 떠나라고 하였거니 즉시 가는 것만 못할지고.’

이리할 제 별주부 연석에 참여하였다가 눈을 부릅떠 토끼를 보며 가만히 꾸짖어 왈,

“내 듣기에도 출랑출랑하는 것이 분명한 간인 듯하거든 네 저러한 피로 우리 대왕을 속이려 하느냐?”

토끼 마음에 분하여 파연(罷宴) 후에 왕께 주왈,

“소토 세상에서 약간 의서를 보았거니와 음허화동(陰虛火動)의 병에 원기 회복하옵기는 왕배탕이 제일 좋다 하오니 왕배는 곧 자라라, 오래 묵은 자라를 구하여 쓰면 기운 자연 회복하올 것이요, 그 다음에 소토의 간을 쓰면 병세 불일내(不日內) 평복(平復)하오리다.”

왕이 이때 토끼 말이라 하면 지록위마(指鹿爲馬)라도 믿고 듣는지라. 즉시 하령하되,

“출세(出世)하였던 별주부 오래 묵은지라. 법을 좇아 잡아들이라.”

하니 현의도둑 거북이 아뢰되,

“㉔ 옛 말씀에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고 높이 뜬 새 없어도 좋은 활이 숨는다.’ 하였사오니 선생 말씀이 옳사오니 주부는 만리타국의 정성을 다하여 공을 이루고 왔삽거늘 제후로 봉하기는 고사하고 죽이는 것은 불가사문어인국(不可使聞於隣國)*이라. 특별히 권도(權道)를 좇아 암자라로 대용하심을 바라나이다.”

왕 왈,

“윤허하노라.”

하시니.

이때 주부 천지 망극하여 집에 돌아와서 부부 서로 손을 잡고 통곡하다가 문득 생각하여 왈,

“내 일시 경솔한 말로 음해를 만나 무죄한 부인을 이 지경을 당하게 하였거니와 천 리 동행한 정분이 적지 아니하고 제 마음이 악독하여 고집스럽지 않으니 우리 정성을 다하여 빌면 다시 측은히 생각하여 구하리라.”

하고, ㉕ 즉시 별당을 소쇄(掃灑)하고 잔치를 배설하여 토끼를 정으로 청하여 상좌에 앉히고 주부 내외 당하에 꿇어 백배 애걸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 양인(兩人) 목숨이 선생께 달렸으니 넓으신 도량으로 짐작하여 잔명을 구하여 주옵소서.”

토끼 수염을 만작이며 웃어 왈,

“네 당초에 날 죽을 곳으로 유인함도 심장에 고이하거늘 하물며 없는 간을 있다 하여 기어이 죽이려 함은 무슨 일이며, 위태한 때에 이르러 애걸하는 것은 나를 조롱함이나?”

- 작자 미상, 『토끼전』 -

* 불가사문어인국: 이웃 나라에 알려져서는 안 됨.

3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별주부가 호랑이 앞에서 고기 값이나 하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상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② 호랑이가 별주부의 외양에서 떠올린 갑주와 방망이 총은 상대와 맞설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
- ③ 호랑이가 바위틈에서 자기 재주를 장담하는 것은 패배를 설욕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다.
- ④ 토끼가 김새를 보아 떠나라는 말을 떠올리고 즉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왕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의지 때문이다.
- ⑤ 별주부가 부인이 대신 죽게 된 것을 자신의 경솔한 말과 음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죽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8. ㉑~㉗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유사한 어구의 반복과 대구를 통해 인물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② ㉒: 의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움직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 ③ ㉓: 동일 행위에 대한 다양한 묘사를 통해 대상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역동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㉔: 고사를 활용하여 상대에게 화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 ⑤ ㉕: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토끼전』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적절히 활용하여 상대를 설득하거나 공박하는 지혜의 대결을 서사의 기초로 한다. 인물들은 상대가 모르거나 상대에게 불리한 화제로 대화를 이끄는 것 같은 방법을 통해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며, 불리한 국면에서는 제삼자를 끌어들이거나 대결을 회피하기도 한다.

- ① 별주부는 호랑이가 모르는 별주부 자신의 근본으로 화제를 이끌어 자신의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군.
- ② 호랑이는 별나리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어 별주부에게 자신을 공략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군.
- ③ 별주부는 범치가 토끼의 간에 대해 말한 바를 가지고 토끼를 회유하여 토끼와의 대결을 회피하고 있군.
- ④ 토끼는 용왕의 병과 관련하여 자신으로부터 별주부로 화제를 옮김으로써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려 하고 있군.
- ⑤ 토끼는 별주부가 자신을 유인했던 과거의 일을 화제로 끌어들이 자신의 우위를 강화하고 있군.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와 동량재(棟梁材)*를 더리 혀야 어이 홀고
헐쓰더 기운 집의 의논(議論)도 하도 할샤
못 목수 고자(庫子) 자* 들고 허둥대다 말려느다

- 정철 -

(나)

바깥 별감* 많이 있어 ㉠바깥 마를 달화주*도
제 소임 다 바리고 몸 쓰릴 뿐이로다
비 식여 서근 집을 뒤라셔 곱쳐 이며
옷 버서 문혀진 담 뒤라셔 곱쳐 쏘고
㉡불한당 구멍 도적 아니 멀니 단이거든
화살 춘 수하상직(誰何上直)* 뒤라셔 힘써 홀고
큰나큰 기운 집의 마누라* 혼자 안자
명령을 뒤 드르며 논의(論議)를 놀라 홀고
낮 시름 밤 근심 혼자 맛다 계시거니
옥 갓튼 얼굴리 편히실 적 몇 날이리
이 집 이리 되기 뒤 타시라 홀셔이고
헐 업는 종의 일은 못도 아니 혀려니와
도로혀 헤여히니 마누라 타시로다
㉢넌 주인 외다 혀기 종의 죄 만컨마는
그러타 세상 보려 민망혀야 사되나이다
㉣새끼 쏘기 마르시고 내 말슴 드로쇼셔
집일을 곱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
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미드쇼셔
진실노 이리 혀시면 가도(家道) 절노 닐니이다

- 이원익, 「고공답주인가(雇工答主人歌)」-

- * 동량재: 건축물의 마룻대와 들보로 쓸 만한 재목.
- * 고자 자: 창고지기가 쓰는 작은 자.
- * 별감: 사내 하인끼리 서로 존대하여 부르던 말.
- * 달화주: 주인집 밖에서 생활하는 종들에게서 주인에게 내야 할 대가를 받아오는 일을 맡아 보던 사람.
- * 수하상직: “누구냐!” 하고 외치는 상직군.
- * 마누라: 상전, 마님 등을 이르는 말.

40. (가),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에서는 연쇄와 반복을 통해 리듬감이 나타나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에서는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안타까움의 정서가 강조되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에서는 직유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④ (가), (나)에서는 모두 색채어를 통해 대상의 면모가 강조되고 있다.
- ⑤ (가), (나)에서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4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직분을 망각하여 화자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는 존재
- ② ㉡: 가까운 곳에 있으며 화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세력
- ③ ㉢: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화자가 설득하고 있는 청자
- ④ ㉣: 화자가 청자에게 당부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행위
- ⑤ ㉤: 화자가 공정하고 엄중하게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일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유학 이념에서는 국가를 가족의 확장된 형태로 본다.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하듯, 국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군신(君臣)이 본분을 다해야 한다. 조선 시대 시가에서는 이러한 이념을 담아 국가를 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 ① (가)의 ‘동량재’와 (나)의 ‘어른 종’은 모두 국가의 바람직한 경영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를 뜻하겠군.
- ② (가)의 ‘기운 집’은 위태로운 상태에 놓인 국가를, (나)의 ‘기운 집’은 되돌릴 길 없이 기울어 패망한 국가를 나타내겠군.
- ③ (가)의 ‘의논’과 (나)의 ‘논의’는 모두 국가 대사를 위해 임금과 신하가 합의하여 도출해 낸 올바른 대책을 뜻하겠군.
- ④ (가)의 ‘못 목수’는 조정의 일에 무관심한 신하들을, (나)의 ‘헐 업는 종’은 조정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신하를 나타내겠군.
- ⑤ (가)의 ‘고자 자’와 (나)의 ‘문혀진 담’은 모두 외세의 침입에 협조하며 국익을 저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뜻하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 박남수, 「아침 이미지 1」 -

(나)

[A]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B]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C]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D] 브라운관이 뿔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겹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E]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

43. (가), (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는 행위의 주체로 표현되고 있다.
- ② (나)에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져 가는 시간을,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 ④ (가)에서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나)에서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변화한다.
- ⑤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을, (나)에서는 ‘어둠’의 포용력을 앞세워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44.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물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②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사물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③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④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하늘의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⑤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사물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혼란을 겪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45. (나)의 [A]~[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지각하고 있어.
- ② [B]에서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 ③ [C]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며, 그 소리를 간과했던 삶을 성찰하고 있어.
- ⑤ [E]에서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